

정정당당 정책선거... 어른들보다 낫네

오늘 초등 학생회장 선거...광주 100여곳 '슈퍼 금요일' 등하교길 피켓·동원 없애고 쉬는 시간 선거운동 금지 교내방송 정전 발표에 학교 밖 유세 막게 기간도 줄여

총선 열기 속에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새 학기를 맞아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의 시작인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1일은 광주지역 전체 153곳의 초등학교 중 100여곳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그야말로 '슈퍼 금요일'이다.

초등학교 전교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던 '항응', '혼탁', '과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다. 예전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이라는 말로 약속했던 무리한 공약들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 대부분의 학교에

서는 등하교길 피켓 유세와 쉬는 시간 선거 운동, 운동장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하는 소견발표도 사라졌다.

지난 9일 오전 10시25분께 북구 삼각초 학생들은 교실 TV를 통해 전교학생회장에 입후보한 6학년 한준서(12), 문지현(여·12), 박정우(12) 후보의 소견 발표 방송을 지켜봤다. 각 후보들은 3분 이내로 각자의 소견과 공약을 발표했다.

삼각초는 몇 년 전부터 등하교길과 교당에서의 선거 유세를 없앴다. 학생들이 공동 운동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치맛바람' 등 학교 밖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기간도 4일로 줄였다.

삼각초 전교학생회장에 입후보한 6학년 생 3명은 밤새 고민한 공약들로 벽보도 직접 만들었다. 공약을 직접 손 글씨로 옮기거나 컴퓨터에서 출력한 글씨를 오려 붙여 만들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예의를 잘 지키는 학교' '유택터가 되는 학교' '왕따 없는 학교' 등 학교 생활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삼각초 김동규 교감은 "예전에는 후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소원수리를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과 소신이 담긴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11일 전교학생회장 선거를 하는 동운초는 피켓을 들고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 하루만 허용했다. 벽보와 방송 소견발표로 대체한 것이다. 학생회장 후보자는 5명이나 된다. 1~2명의 후보들

이 출마했던 것과 달리 누구나 후보자가 되어 소신껏 공약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6~7명의 후보자가 나와 선거를 치르는 학교도 있을 만큼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같은 날 투표가 예정된 오치초도 피켓과 쉬는 시간 선거 운동을 금지시켰다. 역시 방송 소견 발표로 대체했다.

전교학생회장 선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서산초는 지난해까지 업체에 의뢰해 만든 피켓이나 벽보를 일종의 '불법 선거운동 도구'로 간주해 금지해왔다. 대안으로 쉬는 시간에 후보자에게 재료와 물건을 주고 일괄적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동운초 이경진 교사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선거문화를 배워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삼각초등학교 2016학년도 1학기 전교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준서·문지현·박정우(왼쪽부터) 학생이 9일 손수 만든 홍보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9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은행장구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한 학생은 중국인 2명이 현금 수천만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랐다. 조용히 은행을 빠져나온 그는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며 광주 북부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 강력계 형사들은 중국인 유학생 A(29)씨와 B(27)씨를 붙잡아, 현금카드 30여개와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서에 온 이들은 억울해 했다. 한국 화장품을 구입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것.

카드 30개로 수천만원 인출 중국인 왜?

보이스피싱 의심 학생이 신고...2명 검거·5000만원 압수 "물품대금 받은 것...인출 제한에 친인척 카드 사용" 주장

A씨는 "물건을 보내고 받은 돈을 중국 체크카드로 인출하던 차였다"며 "중국이 해외에서의 인출을 하루 1만원인(한화 186여만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7년 전 입국한 A씨는 광주의 한 대학

에서 석사를 수료했고, B씨는 같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4년 전부터 국내에서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한 뒤 인편으로 중국에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일부 거래 내역을 제출

한 만큼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에서 중국카드를 돈을 인출할 경우 환전과 인출 수수료가 붙는 만큼 환치기와도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외무역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경찰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국내 화장품을 구매에 보따리상 역할을 하는 사 람들을 통해 보낸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A씨 등이 한 달 평균 1억원의 물품을 거래하고, 약 10%의 이윤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C방 주인 잔혹 살해 외국인 이틀째 목비권 왜? 범행 동기·엽기 행각 여전히 미스터리

'왜?' PC방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광주 10일 6면)한 케냐 국적의 난민신청자 M(28)씨가 범행 이틀째까지 목비권을 행사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10일 M씨가 주한 케냐 대사관 관계자와 전문상담사의 면담, 경찰 조사에서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영사관 관계자들은 "고향에 가서 가족을 보고 싶지 않으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등 이야기를 건네면서 M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M씨가 굳게 입을 다물면서 범행 동기, 살해된 김모(38)씨와의 관계, 범행에 엮이려 한 이유, 난민 신청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 등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M씨는 지난 9일 불참한 이후 여러 차례 "나는 집에 가는 중이다(im going home)"라는 말을 내뱉었다.

한 인권전문가는 "M씨가 범행을 저지르면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 말대로라면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광주북부경찰서를 찾아와 "불법 체류자다. 집에 가고 싶다"고 수차례 말했고, 경찰과 광주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 "강제 출국해달라"고 말한 정황들이 설명

된다.

하지만 M씨가 경미한 범죄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사실과 범행 과정에서 김씨의 입에 젓가락 등을 넣는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른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다. 또 현행범상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마친 뒤야 출국할 수 있다.

M씨와 김씨와의 관계, 우발적 범행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여전하다. 또 지난해 8월 '종교적 사유'를 들어 스스로 난민 신청을 했던 M씨가 돌연 마음을 바꿔 본국으로 가고 싶어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M씨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와 PC방을 함께 운영한 A씨도 경찰에서 "M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M씨와 같은 국적 동료들도 'M씨가 평소 이상한 행동을 보여왔다'는 말하고 있어 여러 정황들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의 1차 소견에서는 김씨의 사인이 과다 출혈과 경부 압박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밤 PC방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M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수 여중업원 사망 사건 성매수남 81명 검찰 송치

여수 유흥주점 여중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 현직 경찰관·공무원 등 성매수남 성 81명이 기소되기로 검찰에 넘겨진다. 또 실질 운영자와 종업원 등 2명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92명을 입건해 이 중 8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남성 중 여중업원의 장

부에 잘못된 전화번호가 기재됐거나 여중업원이 잘못 기억한 것 같다고 진술을 반복한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중업원(당시 34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유흥주점 여주인 박모(여·43)씨를 지난 1월 검찰에 구속 송치한데 이어 납편이자 공동 업주인 A(47)씨와 남자종업원 B(23)씨를 성매매알선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건된 남성 중 여중업원의 장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공항 폭발물 거짓신고 50대 남자 사흘만에 '털미'

○...광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경찰과 소방관들을 긴급출동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털렸다.

○...1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에 사는 한모(56)씨는 지난 7일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와 "××공업사 사장 지시로 내가 광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있지도 않은 폭발물 제거를 위해 경찰과 소

방관 등 공무원 100여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신고자가 백운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한 단서를 토대로 사흘에 걸쳐 CCTV 200여 대를 분석,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마 전 ××공업사에 차 수리를 맡겼다가 사장님과 다툼이 있었다. 공업사 사장을 해코지하려고 걸었던 전화 한 통이 너무 큰 피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